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⑫ 사마타의 단계와 풍경 (2)



▶한줄 요약
'아미타3부경'에는 보주의 모습이 언급됐는데 특정 형태에 머물지 않고 부단하게 변화한다고 했다. 이는 나옹선사의 '완주가'에도 잘 설명돼 있다. 그 풍경은 현대의 양자역학과 맞닿는다.

나와 모든 사물은 연결돼 살아간다

사마타 수행과 그것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지난 연재에서 언급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심-사-희-락'의 초선정으로 가는 과정을 〈관무량수경〉에 기술된 비유와 함께 쉽게 풀이했다. 사마타 수행은 선정 수행 또는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에) 집중 수행으로도 불린다. 사마타 수행을 할 때 펼쳐지는 주요 풍경 2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하자.

'보배 구슬' 보주의 향연

아미타3부경(무량수경 · 아미타경 · 관무량수경)에는 무수한 '보주(보배 구슬)'에 대한 언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보주로 장엄된 땅 · 당(幢) · 누각 · 나무 · 연못 · 동자 · 연화대 등. 중중무진으로 이어지는 묘사 중에 몇 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극락의 땅을 바치고 있는 기둥은 그 면마다 백 가지 보주로 장엄되었고, 알알이 보배 구슬에서는 일천 가지 광명이 빛나고, 한 줄기 광명마다 팔만 사천의 빛줄기가 유리의 땅을 비추어, 마치 억 천의 해가 동시에 뜬 듯, 눈이 부시어 볼 수가 없다."

이외에도 극락나무 꽃송이는 제석천의 보배병과 같은 씨방에서 무수한 보주를 터뜨린다. 극락 누각은 오백 억의 보주로 장엄되었고, 연화대는 오백 억의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꾸며졌다. 보주에서는 오색 찬연한 빛과 서기(상서로운 기운)가 뿜어져 나온다. 온통 구슬의 향연이다. 미세한 미립자와 같은 구슬들이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간다.

또 우주 공간을 바탕으로 끝도 없이 파도친다. 구슬(또는 보주)의 특징은 결코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부단히 움직인다는 것. 한 시도 쉬지 않고 무상하게 파도친다. 그 변화무쌍한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 의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 '구슬이 이렇게 파도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또 구슬에서는 신성한 빛과 상서로운 에너지가 발산된다. 즉, 특정 형태로 머물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계가 연기(緣起)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고(또는 체득하고) 오도송을 남긴 선사가 있다. 유명한 고려 말기 선지식 나옹 선사(1320~1376)이다.

"신령한 이 구슬, 지극히 영롱하여/ 그 자체는 항하사 세계를 둘러싸 안팎이 비었는데/ 사람마다 푸대 속에 당당히 간직해/ 오며 가며 희롱해도 끝이 없구나/ 혹은 마니보주라 하고 혹은 영주(신령한 구슬)이라 하는데/ 이름과 모양 아무리 많아도 본체는 같다. (중략) 이 마음 구슬 붙잡기 어렵다/ 뚜렷하고 영롱하나 붙잡기 어려움이여/ 모습과 형태 없으면서 형태를 드러내니/ 오고 가는 자취 없어 측량할 수 없다/ 좇아가도 못 따르는데, 느닷없이 찾아온다/ 잠깐 서천에 갔다 순식간에 돌아오고/ 놓으면 허공 되어 품 안에 들어온다/ 거두면 티끌 되어 더 쪼개기 어렵다/ 헤아릴 수 없어라, 찬연한 몸체는 견고하고 단단하다/ 석가모니 그것을 '스스로의 마음 왕(自心王)'이라 부르셨다/ 그 운용은 무궁무진한데 사람들은 부질없이 '스스로의 본체'를 잊고 산다." (필자 번역)

이는 나옹 선사의 '완주가(玩珠歌)'이다. '완주가'라는 제명은 '구슬을 희롱하다' 또는 '구슬을 가지고 놀다'이다. 마치 어린아이의 구슬치기 같은 뉘앙스를 주는 제명인데 그 내용은 깨달음의 풍경을 담고 있다. 제명의 한자 그대로 '구슬을 가지고 논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시가의 내용을 보면 주체가 없고 구슬이 스스로 유희하기에 '유희하는 구슬'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다.

여기서 떠오르는 매우 유사한 제명이 있는데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이다. '유리구슬의 유희'라는 뜻이다. 이는 헤르만 헤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소설 작품이다. 이 소설은 헤세의

'아미타3부경' 언급되는 '보주' 모습
특정 형태 머물지 않고 부단히 변화
나옹선사 '완주가' 훌륭히 보주 설명
그 풍경들 살피면 양자역학과 맞닿아
내 생각, 감정이 우주 전체 뒤덮으니
긍정으로 내 삶과 우주를 채워내어라

가장 유명한 장편소설이자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문학 최대 걸작으로 평가된다. 음악 천재인 주인공이 피아노를 치자, 음악이라는 소리가 과거가 되고 이미지가 되어 경계를 넘나든다. 시공을 초월해 변화하는 에너지의 모습으로 소설의 첫머리는 장식된다.

헤세는 〈싯다르타〉라는 붓다의 깨달음의 여정을 조명한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특히 말년의) 시와 소설을 보면, 다분히 명상 체험적인 내용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쪼갤 수 없는 미립자 구슬

나옹 선사의 '완주가'는 내용 전체가 유머와 위트,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넘치고 있다.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우주의 비밀. 그 풍경을 엿본 그는 이를 특유의 혜안(慧眼)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거두면 티끌 되어 더 쪼개기 어렵다(收則微塵難析開)'라는 부분은 요즘 유행하는 양자역학을 떠올리게 한다.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는 미립자 중의 미립자. 나옹 선사가 묘사한 구슬의 모습은 미립자의 특성과도 매우 닮아 있다.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를 쪼개면 원소가 되고, 원소를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된다. 한 개의 원소 안에는 수천 개의 원자가 존재한다. 원소를 쪼개면 그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을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구름이 있다. 전자구름은 파동(波動 wave)을 말한다. 원자핵 밖에는 전자와 소립자(쿼크라는 경입자)가 있다.



보배 구슬과 장엄된 노사나불. 〈쌍계사 노사나괘불〉의 부분이다. 1799년, 마본에 채색. 경남 하동 쌍계사 소장.

양자역학(量子力學, Quantum mechanics)이란 원자와 이를 이루는 미립자 등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현대물리학의 한 분야이지만, 거시 세계의 바탕을 이루므로 결국 미시와 거시 구분 없이 존재의 본질적인 현상을 다룬다하겠다. 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로 일컬어진다. 광자는 빛의 단일 양자이며, 이에 따라 '광양자'라고도 부른다. 결국, '빛과 파장'이라는 것이 최소 단위로 남는다. 빛의 알갱이들(보주)과 상서로운 파장(瑞氣)의 향연이다. 이것이 모든 존재하는 사물의 실재(實在)이다.

예전, 수행처에서 한 도반이 "붓다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엄청난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을까요"라고 한 적이 있다. 굳이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붓다는 2500년 전에 통찰지로 존재의 실체를 보아버렸다.

'보배 그물'의 장엄, 인드라망

사마타 수행을 할 때 펼쳐지는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보내 구슬' 이외에) '보배 그물'이 있다. 그물이라니? 먼저 아미타 신앙 관련 경전 상의 언급들을 보도록 하자.

"미묘한 진주의 그물이 보배 나무에 두루 덥혔는데, 그 진주 그물은 나무마다 일곱 겹으로 둘러 있다. 그 그물 사이마다 오백 억의 아름다운 꽃 궁전이 있는데 마치 범천의 궁전과 같다." "마니보주로 이루어진 연화대는 팔만의 금강석과 견숙가보와 법마니보와 묘진주의 그물로 장엄되었다." "보배 구슬은 (중략) 변화하여 갖가지 다양한 형상을 이루는데, 혹은 금강대가 되고, 혹은 진주의 그물이 되고, 혹은 여러 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한다."

'진주의 그물'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물은 인드라망(indrajāla, 因陀羅網)을 말한다. 〈화엄경〉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인다라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에는 모든 의식은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한다. 존재의 최소 단위 중 하나로 꼽히는 쿼크라는 미립자는 미세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지 오래이다.

인드라(Indra)는 한문으로 제석천으로 번역된다. '제망찰해(帝網刹海)'라는 문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제석천의 그물(제망, 인드라망)이 중중무진 바다처럼 펼쳐져 있다는 뜻이다. 〈화엄경〉에 따른 인드라망의 진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드라망은 천신들의 왕인 인드라, 즉 제석천이 머무는 궁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이다. 사방으로 끝없는 이 그물의 그물코마다 보배 구슬이 달려 있다. 어느 한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추고, 다른 모든 구슬들 역시 동시에 다른 모든 구슬들에 비춘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존재한다. 만약 하나의 그물코의 구슬이 빠진다면, 모든 그물코의 구슬이 동시에 모두 빠져버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맞물린 구조이다. 서로가 서로를 계속 복제하여 비추면서, 비춰지는 단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존재해가는 유기적 구조이다. 즉, 전체가 존재하거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구슬에 비춰진 다른 모든 구슬의 영상이 다시 다른 모든 구슬에 거듭 비춰지며 이러한 관계가 끝없이 중중무진으로 펼쳐진다."

우주라는 공간에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물의 의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재는 정반대이다. 그러니 결코 외로워할 일은 없겠다. 우리의 의식은 그물 에너지의 장으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 내가 일으키는 한 감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우주 전체를 뒤덮는 것이다. 불교가 말하는 실상을 알았으니,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면 된다. 부정으로 내 삶과 우주를 뒤덮을 것인가, 아니면 긍정으로 내 삶과 우주를 뒤덮을 것인가.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화엄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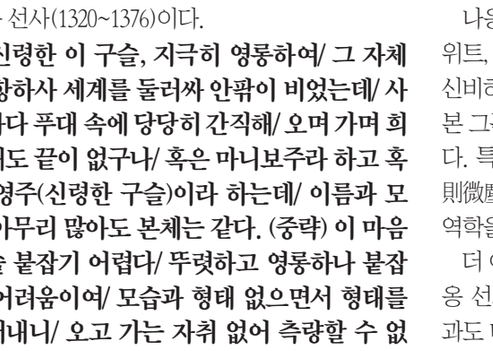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묘덕사(정해사로 변경)
• 주 지 : 법인 스님
•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고동골길 67-17 (후포리, 묘덕사)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한국불교태고종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